

월간 송광사

월간
송광사

이천이산출판사
통권 300호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지킴이
통권 300호

2026
03

통권
300호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지킴이

송광사

월간 송광사 2026년 3월 1일 발행 | 통권 300호 | 2001년 9월 19일 등록 전남 라00054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 안길 100 | www.songgwangsa.org

불기2570(2026)년 송광사 불일불교대학

제13기 수강생 모집

청정한 믿음과 바른 이해의 요람, 송광사 불일불교대학이 오는 4월 개강합니다.
불일불교대학의 강좌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입학식	2026년 3월 27일(금요일) 13:00 대응보전	수강료	신입 40만 원, 재수강 30만 원(교재비 별도)
개강일	2026년 4월 3일(금요일)	입금 계좌	농협 615107-51-021962 예금주:송광사
강의 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 11:30 오후 13:00 ~ 15:00	입학문의	송광사 교무국 061)755-0107

구분	날짜	오전 10:00~11:30	오후 13:00~15:00
1	03월 27일	입학식	
2	04월 03일	불교 기초 교리 교무국장 시견 스님	학장 주지 무자 스님
3	04월 10일		생활 속의 불교 연광 스님
4	04월 17일		
5	04월 24일	봄 성지 순례	
6	05월 01일	불교 기초 교리 교무국장 시견 스님	생활 속의 불교 연광 스님
7	05월 08일		
8	05월 15일		
9	05월 22일	부처님의 생애 송광사 올원장 대경 스님	삼국유사로 읽는 불국토 이야기 오도암 감원 혜정 스님
10	05월 29일		특강 1. 광우 스님 불교TV BTN <소나무> 진행자
11	06월 05일		
12	06월 12일		삼국유사로 읽는 불국토 이야기 오도암 감원 혜정 스님
13	06월 19일		
14	06월 26일		
15	07월 03일	불교 사상사 송광사 학감 각행 스님	법화 칠유 교무국장 시견 스님
16	07월 10일		
17	07월 17일		
18	07월 24일		
7월 31일 ~ 8월 14일 방학 (수련 법회 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19	08월 21일	불교 사상사 송광사 학감 각행 스님	법화 칠유 교무국장 시견 스님
20	08월 28일		화엄경 입법계품 선혜 스님
21	09월 04일		
22	09월 11일		
23	09월 18일	추석 휴강	
	09월 25일		
24	10월 02일	불교 사상사 송광사 학감 각행 스님	화엄경 입법계품 선혜 스님
25	10월 09일	유교경 송광사 학장 연각 스님	
26	10월 16일		화엄경 약찬게 보경 스님
27	10월 23일		
28	10월 30일	가을 성지 순례	
29	11월 06일	유교경 송광사 학장 연각 스님	화엄경 약찬게 보경 스님
30	11월 13일		
31	11월 20일		
32	11월 27일		
33	12월 04일		특강 2.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장 스님
34	12월 12일		해외 성지 순례

학사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례

- 02 주장자
을사년 동안거 반결제 법문_현묵 스님
- 04 함께 읽는 불교 성전
윤회를 끝내고 성불로 가는 길_무자 스님
- 06 붓다카페
마음이라는 음식에 생각이라는 양념을_연각 스님
- 08 삶과 수행 이야기
내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듯,
모든 존재가 그러하다_정운 스님
- 10 송광사 산책
안행_안홍범
- 12 조계 마당
응진전에서 정초 기도 올리며_지월 이경연
- 14 목우가품의 문장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_이월야
- 18 정보(聖寶)와 상징
응진전 제석천 도상의 기원_유근자
- 22 산문 밖에서 본 사찰 음식
꽃잎을 놓을 때_오은미
- 24 송광사에 자취를 남긴 고승
근대의 송광사를 든든하게 지킨
금명 보정_이정범
- 27 미닛 불교
인도 보드 가야 대각 사원_황순일
- 30 송광사 교구 소식

월간
송광사

2026년(불기 2570년) 3월호
통권 300호

등록일 2001년 9월 19일
등록번호 전남 라 00054
발행일 2026년 3월 1일

발행·편집인 무자
편집 위원 고경, 고산, 무경,
시견, 연성, 인석
편집장 해원
편집실 김성재, 이지영
디자인 쿼담디자인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송 광 사**

57913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 안길 100
편집실 전화 061-755-0107, 팩스 061-755-0408
홈페이지 www.songgwangsa.org
대표메일 songgwang01@naver.com



표지 사진 | 대웅전 앞마당 매화 ©안홍범.

월간 『송광사』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 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월간 『송광사』의 저작권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총괄조계총림 송광사에 있으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을사년(乙巳年) 동안거 반결제 법문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편양 현묵 대종사



동안거 반결제 법문

오늘은 동안거 반결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진하는 대중스님들은 정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참선법회에 오신 신도님들은 공부의 확실한 길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자상하게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일암에 법정 스님이 계실 때 스님께서도 결제 때에는 때론 묵언도 하시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셨는데, 포행 시간에 그 길을 지나다가 반결제 때 들른 적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차를 한 잔 내주셨는데, 정진하는 방에 고봉 스님의 계송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때로는 산봉우리에서 옷깃을 휘날리고,
때로는 바다 밑 진흙바닥에서 헤매기도 한다.

우리 수행자의 살림살이를 참으로 잘 표현한 계송입니다. 수행 정진이란 때로는 얼음판 위에

배를 밀듯 거침없이 나아가다가도, 또 때로는 깊은 수렁에서 한 치도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일념을 잘 챙겨 가야 할 것입니다.

구도자란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참부처님을 찾아 순례를 떠나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사의 길은 끝이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기댈 만한 언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고해무안(苦海無岸)이라 했습니다. 이런 지경에서도 수행자는 오직 화두 일념으로 길을 밝혀 가야 할 것입니다.

태고 보우 선사께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玄界唯一門	현계유일문
如何人不歸	여하인불귀
參透趙州無	참투조주무
鐵鎖自然開	철쇄자연개



온 세계가 그대로 하나의 문이건만,
어찌하여 그 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가!
조주 무자를 일념으로 참구하여 꿰뚫으면,
굳게 잠겨 있던 쇠 자물쇠가 스스로 열리게 되리라.

우리 간화선 문중에는 1,700공안이 있으며, ‘조주 무자’를 참구하든, ‘이뵈고’ 화두를 참구하든, 어느 화두이든 간에 일념으로 참구하여 타파하면 굳게 잠겨 있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가르침입니다.

‘조주 무자’란,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 하는데 조주 선사는 어찌하여 “무(無)”라 하셨는가, 이 간절한 의심을 놓지 않고 참구하는 것입니다. ‘이뵈고’란, 육조 스님께서 남악 회양에게 “무슨 물건이 이리 왔는가(什麼物怎麼來)?” 하시니, 이 한마디에 딱 막혀 물러난 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한 물건이 과연 무엇인가, 참 주인공을 찾기 위해 간절히 참구한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은산철벽을 꿰뚫고 나가겠다는 용맹정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 의심을 챙겨 가면 어느 때는 고봉 정상에서 옷깃을 휘날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바다 밑 진흙바닥에서 헤매는 것 같은 난감한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구월심으로 의심을 챙기다 보면 그 의심이 한 덩어리로 뭉치게 되니, 이를 의단(疑團)이라 합니다. 의단이 독로(獨露, 오직 그것만 저절로 드러남)되어야 공부길이 순하게 열리고, 공부가 순숙(純熟, 무르익음)해지면 무겁던 의심도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그때 더욱 가행정진하면 비로소 닫혀 있던 문이 스스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할 곳 없던 곳에서 비로소 의지할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옛사람들이 회두시안(回頭是岸)이라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보니 사방에 보이지 않던 언덕이 탁 나타나, 그 언덕에서 편안히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매섭던 겨울 안겨 중에도 어느덧 봄기운이 비쳐 옵니다. ‘춘래초자청(春來草自靑)’이라, 봄이 오면 풀이 스스로 푸르게 돌아나리라.’ 이 가르침은 수행자가 마음에 늘 담아야 할 교훈이자 자연이 들려주는 대법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송광사에는 보조 국사님의 목우가풍(牧牛家風)의 흐름이 지금도 유유히 흘러오고 있습니다. 소를 치는 목동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며, 오직 수행자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것이 보조 국사님의 가르침이요, 목우가풍의 큰 뜻입니다.

송광사에서 한 철을 나시는 사부대중께서는 옛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새기시고, ‘원성불도중생(願成佛度衆生)’, 큰 보살의 원을 세워서 회향하기까지 오직 일념으로 정진하시어 날마다 좋은 날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반결제 법문을 마칠 것입니다.

(함장)

글 무자 스님
송광사 주지
그림 김진이



초하루 법문

윤회를 끝내고 성불로 가는 길



음력 선달[臘月] 초여드렛날은 부처님께서
정각(正覺)을 성취하신 성도일(成道日)입니다.
예전에는 이날 함께 모여 '성불도'(成佛圖)
놀이를 했습니다. 요즘은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라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성불도 놀이는 윷놀이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소리치고 시끌벅적하게 노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업(業)을 돌아보며 진행하는
수행 놀이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 새겨진 패를 던져서
삼십삼천 세계, 육도 윤회를 거듭하다가 성불에
도달하는 놀이입니다.

육도란, 지옥(地獄), 축생(畜生), 아귀(餓鬼),
아수라(阿修羅), 인간(人間), 천상(天上)을
말합니다. 성불도에서 가장 먼저 불지(佛地)에
이른 사람이 그날 점안(點眼)하고 생불이 되어
설법하고 회향합니다.

성도일은 우리가 중생심(衆生心)을 떠나서
오로지 불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불도 수행의 최고 목표를 꼭 성취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생이란,
윤회하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생의 반대말이 부처입니다.
일체 윤회 세계를 떠나고 더 이상 헤매지 않는
삶이 바로 해탈입니다. 중생심을 단절하면
곧 불심(佛心)이고, 바로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경전에서는 “일체육도 개살단절(一切六道
皆悉斷絕)”한 존재가 부처라고 말합니다(『起世經』,
제9권). 육도 윤회를 떠난 존재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란, 윤회를 하지 않는 적멸(寂滅)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윤회는 도공의 물레와 같으니

불교에서 네 개의 성문(城門)을 언급할 때,
순서는 동남서북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출발한 위치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성문이라면 사각형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원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윤회라고 말하면 누구나
사각형보다는 먼저 원형을 떠올리는데,
특히 인도인들은 돌고 도는 돌림판, 그것도 몹시

빨리 회전하는 물레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수레바퀴가 아니라 질그릇을 만들 때 쓰는 물레,
녹로(轉轡)를 보면서 윤회하는 세상이 이와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토기(土器) 만들 때 쓰는 돌림판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빨리 돌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같다고, 옛 인도인들은 간파했던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도상이 우리가 흔히
보고 말하는 ‘윤회의 수레바퀴’입니다.

싯다르타의 사문유관(四門遊觀)

어느 날 싯다르타 태자는 동문으로 나가서
노인을 생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노인은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었고 멋진 모습은
더욱 아니었지요. 태자는 시름에 잠겼습니다.
다시, 남문으로 나갔던 태자는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태자는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또 시름에 잠겼습니다.
또다시, 서문으로 나간 날, 태자는 누군가의
장례 행렬을 보았습니다. 죽음,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태자는 이고득락(離苦得樂, 고통을 벗어나
평안을 얻는 것)을 향해 마음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문으로 나간 날,
태자는 처음으로 출가 수행자를 만납니다.
불교에서는 성불하는 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출가 수행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그 옛날 싯다르타
태자는 출가를 결행하였습니다.
태자의 나이 29세 때였습니다.☯

▶ 『불교 성전』, 65~74면 참조.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마음이라는 음식에 생각이라는 양념을



매일 거르지 않고 해야 할 일 중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에너지를 섭취해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평생 음식을 먹으며 살아간다. 어차피 먹어야 산다면 이왕이면 맛있게 먹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맛있다’라는 기준은 참으로 모호하다.

공양 때마다 따로 소금을 채겨 가는 스님이 한 분 계신다. 너무 짜게 드시는 것 아니냐며 걱정 섞인 잔소리를 해 보지만, 본인은 소금을 더 넣어야 맛이 난단다. 후원 음식이 결코 싱거운 편이 아닌데도 스님의 입맛이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다. 건강을 위해 소금을 줄여 보시라 권해도, 이왕 먹는 것 맛있게 먹어야 한다면 고집하신다.

아마 다른 이들이 그 음식을 맛본다면 너무 짜다며 손사래를 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사람마다 맛을 느끼는 적점(適點)은 저마다 다르다. 각자가 길들여온 식습관의 결과가 곧 입맛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건강한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해도, 오랜 시간 형성된 본인만의 ‘맛난 맛’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

나 또한 출가 후 첫 공양 때 몹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모든 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 먹어야 했는데,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비위가 상해 참기 힘들었다. 생전 처음 느껴 보는 비릿함에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모든 재료가 섞여 있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역한 것인지 알 길도 없었다. 음식을 남길 수 없는 가풍에 억지로 그릇을 비웠지만, 다음 공양 시간이 두려워질 정도였다. 훗날 알고 보니 그 원인은 ‘고수’(coriander, 미나릿과 식물)라는 향채(香菜)였다. 절에 오기 전에는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했기에 거부감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수를 참 잘 먹는다. 입맛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식문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이 또한 ‘무상’(無常)의 한 단면이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사고(思考)하는 습관에 따라 마음의 모양도 변한다. 결국 생각이 마음을 결정하고 엮어매는 사슬이 되는 셈이다.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지만, 그 또한 본인의 마음이 만들어 낸 판단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념’(無念)을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느끼는 맛은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이 아니다. 어떤 양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우리는 그저 그 양념들이 버무려진 ‘종합적인 맛’을 그 음식의 진짜 맛이라 착각한다. 우리의 생각 역시 그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환경이라는 양념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을 알려면 양념을 걷어 내야 하듯, 마음 본연의 자리를 깨달으려면 잡다한 분별심의 요소들을 빼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요소를 덜어 내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념(無念)이라 한다. ‘청정’하다는 의미 또한 번뇌의 요소가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무념 청정한 부처님의 진리에 닿고자 한다면, 내 마음을 먼저 무념 청정한 상태로 닦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이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 번뇌를 직시하고, 그 굴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공양의 길이다.🍵

글 정운 스님

내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듯, 모든 존재가 그러하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한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 『법구경』

요즈음 세계 뉴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물고기도 잔혹한 죽음을 완화하는 인도적
국제 기준이 나올 예정이라는 보도이다.
어류도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에 괴로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물고기보다 더 느끼지 않을 것 같은
초목(草木)도 고통을 느끼는 법이다.
근자에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을 함부로
살상하는 이들에게 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열반경』에서는 “초목 국토인 무정물도
다 성불한다(草木國土 悉皆成佛).”라고 하였다.

고대 인도에 한 성자가 있었다.
성자가 깊은 삼매에 들어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성자의 품에 안겼다.
비둘기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바들바들
떨었다. 이때 매 한 마리가 날아와 성자에게
말했다.
“성자님, 그대 품안에 있는 비둘기를
내놓으십시오.”
성자가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젓자,
매는 성자에게 간절한 투로 말했다.
“성자님, 저는 며칠을 굶었습니다. 저 비둘기를
잡아먹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나는 출가자요, 생명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내놓을 수는 없소.”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군요. 당신이 비둘기를
지키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나는 굶어 죽어야
합니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매가 성자에게 말했다.

“그러면 성자님, 성자님께서 비둘기 무게만큼의
살코기를 떼어 주십시오.”
“살코기라면,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는 얻을 수
없으니 내 몸의 일부를 떼어 주겠습니다.”
성자는 저울 한 쪽에 비둘기를 올려놓고,
한쪽 저울에 자신의 허벅지 살 일부를 잘라 올렸다.
그 정도면 충분히 비둘기 몸무게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비둘기가 더 무거웠다.
성자는 다시 다른 쪽 허벅지 살을 잘라 올렸는데,
이번에도 허벅지 살이 비둘기 무게보다 가벼웠다.
할 수 없이 성자는 자신이 직접 저울 위에
올라갔다. 그제야 자신의 몸무게와 비둘기 무게가
똑같아졌다. 성자에게 감동을 받은 매는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위의 글에는 생명의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이나 비둘기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인간은 만류의 영장이라고
하며, 동물이나 조류 위에 군림하며,
오만을 부리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존재는
그들 나름대로 잘 살아간다. 나보다 하열한
존재라고 학대하고, 함부로 살상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확대해서 보자면, 인간에 대한
차별이나 죽음의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 어느 나라는 내전으로 인해서
하루도 맘 편히 살지 못하고, 조국을 떠나
세계 각국을 떠도는 난민이 되어 살고 있다.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서 무슨 생명의 존엄이
있겠는가? 또 종교 전쟁이 일어나,
여기저기서 자살 폭탄 사고가 발생하고
적게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어 간다.

인간이란 존재가 하찮은 미물로 하락한 느낌이
든다. 인간의 생명이 이리도 가벼웠던가?
타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며,
내가 있기 때문에 타인도 존재하는 법이다.
또한 수많은 동물과 조류, 식물까지 모든
존재가 어울려 공존하는 세상이다.
공존하는 세상에 어떤 존재인들 귀하지
않은 생명이 있겠는가?
불교에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는 뜻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 외쳤던 말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유아’(唯我)란 절대적인
자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요, 생명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탄생계(誕生偈) 속에는,
생명을 소중히 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이 담겨 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 고귀한 존재들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귀하면 타인도 귀한 존재요,
내 생명이 소중하면 이 세상 모든 중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정운 스님 | 현재 대승불전연구소장이다.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운문승가대학의
명성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동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조계종 종단의 교육과 연구를 전담하는 교육 아사리이다.
『경전 숲길』, 『유마경』, 『법구경 마음 공부』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안雁
행行



응진전에서 정초 기도 올리며



응진전 정초 기도. © SMC.

송광사 응진전(應眞殿)은 나한전(羅漢殿)이라고도 하며, 내부에는 16나한상과 16나한도가 봉안되어 있다. 1623년(인조 1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2001년 6월 5일에 전라남도 유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6국사를 배출하여 역대 큰 스님들의 행적과 숨결이 담긴 이곳은 삼일암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평소 개방하지 않는 특별한 공간이다. 높은 기단 위에 단아한 모습으로 자리한 응진전 건물 좌우에는 하사당과 상사당이 있다.

응진전 정초 기도에는 많은 불자들과 함께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도 동참한다. 응진전은 새해의 소망과 건강, 평안을 발원하고 기도한 뒤 소원을 성취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해 오는 곳이다. 정초 기도 입재 때, 우리는 정성껏 준비한 공양물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올린다.

“지혜의 눈 밝으신 분들이시여, 자비의 방편을 구족하신 분들이시여, 지혜로우신 16아라한께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온갖 다툼과 시비가 잡초처럼 자라는 이곳에서, 우거진 나무들 그 깊은 숲 속으로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하는 모든 분들께 눈물을 감로수로 바꿔 주실 수 있는 큰 지혜를 깨달은 분이시여!

먼 타향에서 음지에서 절망과 실패로 좌절하신 분들께 희망의 말과 손길로 다가와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시여!

거룩하신 16아라한 앞에서 예를 올립니다. 끝없는 욕심과 어리석음의 삶 속에서 벗어나 탐·진·치, 3독(毒)을 끊어 버리고, 정성 깃든 공양과 함께 지혜와 자비가 우리 삶 속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응진전에서 올리는 정초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소원 성취를 비는 기복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는 깊은 수행의 장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쌓인 업장을 참회하고, 새해를 맞아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청정한 발원을 올린다. 16나한은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분들이기에, 그분들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태어나는 서원을 세운다.

송광사는 보조 국사 지눌 스님 이래로 수많은 고승 대덕이 정혜쌍수와 돈오점수의 가르침을 펼친 도량이다. 16국사를 배출한 곳에서의 기도는 그 영험뿐만 아니라 면면히 이어져 온 수행 전통과 청정한 기운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발원이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정초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함께하는 데에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불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올릴 때, 그 청정한 염력은 개인의 작은 소망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큰 원력으로 승화된다.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응진전

앞에 선 우리는 모두 평등한 부처님의 제자이며,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도반이 된다.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도 함께 동참하는 이 기도는 더욱 특별하다.

일상의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향해 정진하는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력이 우리의 기도에 더해질 때, 그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닌 깨달음을 향한 서원이 된다.

2026년 한 해 동안 응진전에서 올린 기도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터로 향할 때, 힘든 일을 마주할 때, 기쁜 일을 맞이할 때, 언제나 응진전에서 그 엄숙하고 청정했던 순간을 떠올리길 바란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탐욕을 멀리하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저희의 염원과 발원을 들으시고 가피를 내려 주소서!”

기도는 수동적인 기원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16나한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우리 자신이 가피의 주체가 되겠다는 능동적인 서원이다. 16나한은 이미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 주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송광사 응진전의 신성한 기운이 우리 모두의 삶에 깃들기를 기원하며, 2026년 한 해가 모든 불자들에게 지혜와 자비, 평안과 건강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몇 해 전의 일이다. 어느 날 한 거사가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나를 찾아왔다. 여러 절이나 선원에도 물어보았는데,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이곳까지 왔다고 했다. 그는 종이에 쓰인 것도 아니고 글자도 없는 경전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 순간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다.

내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펼쳐도 한 글자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비춘다.

경(經)이란 부처님 말씀을 뜻하며,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경전은 '마음'이니라는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전은 부처님이 깨친 마음을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선(禪) 불교에서 진짜 경전은 종이에 쓰인 언어, 문자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강조할 때 위 구절이 자주 인용된다. 한마디로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등 모든 경전의 원본은 마음에 있다는 뜻이다. 그 거사는 만족한다는 표정을 짓고 한동안 이곳에서 불교를 공부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 '일경'(一經)이란 호를 주기도 했다. 어떤 인연이 작동했는지 몰라도 '한 권의 경전'이 이곳에 왔으니 말이다. 이 얘기는 오늘의 목우가품 문장과 관계가 있다.

혜심이 어느 승려에게 전한 말이다.

티끌 속에 큰 경전이 있는데,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무의자(無衣子) 시집』 '담령상인구육잠'
(湛靈上人求六歲)에 나오는 구절이다.

무의자는 혜심의 호이고, 담령이란 승려가 여섯 가지 가르침을 구했다는 뜻이다. 혜심은 눈과 귀, 코, 입 등의 여섯 감각 기관을 주제로 전하는데, 위 구절은 눈으로 경계해야 할 것을 말한 내용이다. 혜심은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부처님 말씀이므로 그것을 제대로 보라고 강조한다. 앞서 소개한 마음속 경전과 의미가 통하는 대목이다. 대장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래 마음과 온 우주가 곧 참 불경(佛經)이라는 것이 선(禪) 불교의 입장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소동파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상총 선사(常總 禪師)라는 고승이 그에게 유정(有情) 설법이 아니라 무정(無情)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언어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무정한 자연 자체가 부처님 말씀이니,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소동파는 말을 타고 어느 계곡을 지나가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때의 심정을 시로 읊었다.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산 빛이 어찌 청정 법신이 아니겠는가?

현란한 소리를 좇지 말라

무정 설법의 뜻을 알아채는 순간이다. 부처님 말씀은 종이에 쓰인 경전이나 선사들의 법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냇물 소리와 푸른 산 빛 등 온 우주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친 것이다. 법회를 회향할 때 독송하는 사홍서원 가운데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다.”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서 법문(法門)은 단순히 부처님의 진리(法)를 담은 글[文]만이 아니라 진리에 들어가는 모든 문을 가리킨다. 물소리나 산 빛뿐만 아니라 새가 날고 눈이 내리는 모든 소식이 법문이므로 한량없이 많다고 한 것이다. 혜심이 담령에게 전한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참 경전이니, 그것을 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색(色),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견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언어, 문자로 된 것만 경전이라는 집착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무정 설법을 이해하지 못한 소동과처럼 말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반야심경』에서 전하는 색즉시공(色卽是空), 즉 색깔을 텅 비우는 일이다. 그래야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는 우리의 눈을 교정할 수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립이나 갈등은 대부분 여기에서 기인한다. BTN에서 매일 방송되는 108대참회문에 나오는 내용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절을 하면 우리 안의 편견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하옵니다.”

전주는 소리의 고장이다. 대사습놀이 전국 대회를 비롯하여 전주 세계 소리 축제도 해마다 열리고 있다. 명창의 판소리 공연과 가야금 산조, 병창 등의 무대가 자주 열리고 있어 관광객도 많이 온다. 그래서인지 춘향가나 심청가 한 대목 정도는 부를 줄 알아야 이 지역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 판소리를 감상하는 수준도 꽤 높아서 귀명창이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소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듣는 귀만큼은 명창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소리가 모두 달라서 어느 것이 좋은지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다. 몇 해 전 어느 학인이 텔레비전에서 좋은 판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기에 일부러 찾아본 적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내 귀에는 그리 잘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내 귀가 이상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다른 몇 사람과도 얘기해 보았다. 결론은 듣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모두 달랐다는 것이다. 우리의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보려는 것처럼, 귀 역시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혜심의 다음 문장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다섯 가지 소리를 좇아가지 말라.
그 소리가 너를 귀먹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5음이란 전통 음악의 음계인 궁, 상, 각, 치, 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다섯 음으로 이루어진 현란한 음악 소리를 쫓아가면, 귀가 먹을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시만 해도 음악은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 여겨 계율로 금하고 있었다. 혜심은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고 담령에게 강조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우리의 귀 또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끄러운 광장이라 해도 자신이 관심 있는 주식 이야기가 저 멀리서 들려오면 귀가 알아서,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만약 축구에 관심이 있다면, 올해 6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바로 옆에서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먼 곳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셈이다. 좋게 해석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귀의 선택과 집중은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요즘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등 기성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이슈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뉴스만을 골라 듣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유튜버 또한 많다. 어찌 보면 소비자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연히 특정 성향의 채널에 방문하게 되면, 그때부터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유튜브에 접속할 때마다 그와 유사한 채널로 안내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의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결국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색깔[色]에 물드는 것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때로 혐오와 폭력이 동반되기도 한다. 혜심이 지적한 소리에 귀먹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역시 색깔을 지우는 길밖에 없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신을 돌이켜 보고 내 안의 편견을 텅 비우는 일이다. 앞서 말한 색즉시공이 귀의 영역에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비우는 일이 쉬운 일이던가? 오랫동안 무의식에 쌓여 있어서 아무리 다짐한다 해도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끊임없는 정진이 필요한 것이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하옵니다.” 이 참회문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찬찬히 들어 보자. 혹여 한쪽 귀는 닫은 채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들은 것이 아닌지 말이다. 절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이, 편견이라는 색깔을 저 멀리 떨쳐 낼 것이다. 🌱

이야기 1 현재 전북불교대학 학장이다.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과 부처님 세상(사) 이사장을 역임했다. 『아홉 개의 산문이 열린다』,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응진전 제석천 도상의 기원



[그림 1, 2] 송광사 응진전 안 존상의 배치 상태. 화면 좌우 맨 끝자락에 제석천이 모셔져 있다. © SMC.



[그림 3] 송광사 응진전 왼쪽 제석천, 1624년. © SMC.

응진전의 제석천

송광사 응진전의 문을 열면 정교하게 설계된 불교적 우주와 마주하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를 지키는 나한상과 사자상, 장군상은 엄격한 대칭을 이루며 영취산의 법회 현장을 장엄하게 수호하고 있다[그림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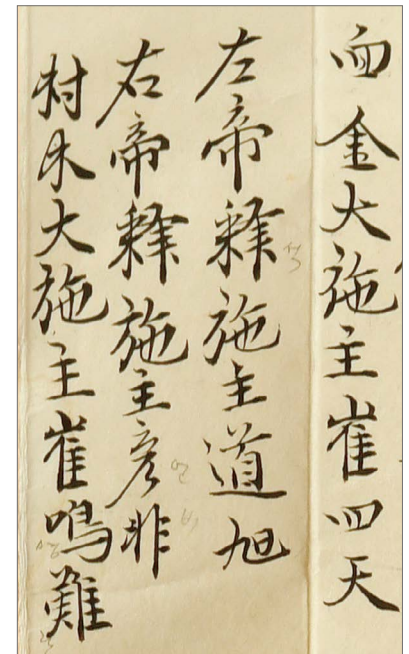
그런데 이 엄격한 대칭 속에서 유독 한 쌍의 존재만이 오랫동안 제 이름을 잃은 채 다른 이름으로 불려 왔다. 바로 왕의 복장을 하고 바위에 걸터앉은 채, 우리를 응시하는 두 신장상의 이야기이다[그림 3, 4].



[그림 4] 송광사 응진전 오른쪽 제석천, 1624년. © SMC.

그동안 학계와 세간에서는 이들을 당연하게 ‘제석천’과 ‘범천’의 쌍으로 해석해 왔다. 현재 송광사 응진전 제석천상의 머리에 쓴 보관의 형태나 몸에 걸친 천의(天衣)의 색깔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은 두 상을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념은 국가 유산청 공식 설명 자료까지 이어져, “송광사 응진전에는 제석천과 범천, 인왕 등 총 27구의 상이 봉안되어 있다.”라는 해설을 요지부동의 정설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견고한 해설 뒤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오류가 숨어 있다. ‘좌우 제석천’ 한 쌍을 제석천과 범천으로 인식하고, 문 입구를 지키는 장군상을 인왕상으로 오인한 점이다. 이들의 정체는 불상 안에서 잠자던 기록, 즉 ‘조성 발원문’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명확히 밝혀졌다. 기록은 이들을 ‘좌우 제석천’(左右帝釋天)이라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그림 5]. 완주 송광사 나한전의 사례가 보여 주듯, 조선 시대에는 16나한과 함께 두 분의 제석천을 나란히 모시는 것이 정형화된 양식이였다. 비록 겉모습에 변화를 주어 범천으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본질은 부처님을 수호하는 한 쌍의 제석천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디테일은 자세에서도 발견된다. 송광사 응진전의 제석천들은 소매 끝에 길게 덧댄 천인 ‘한삼’(汗衫) 속으로 두 손을 다소곳이 감추고 있다. 이는 옷어른이나 왕 앞에서 손을 보이지 않는 것을 도리로 여겼던 우리 전통



[그림 5] 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모니불상 발원문에 기록된 ‘左帝釋 右帝釋’, 1656년.

예법의 시각적 투영이다. 천상의 제왕이자 강력한 호법 신장인 제석천조차 부처님과 나한님 앞에서는 지극한 공경의 예를 갖추고 있다. 송광사 응진전의 제석천상은 단순한 종교 조각을 넘어, 인도에서 발원한 고대 불교 도상이 조선의 유교적 예법과 만나 어떻게 한국적으로 재해석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제석천, 번개의 제왕에서 불법의 수호신으로
제석천의 기원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전인 『리그베다』의 영웅, ‘인드라’(Indra)이다. 본래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며 비를 관장했던 그는, 무기 ‘바즈라’(vajra, 금강저)로 악룡을

물리치고 우주의 질서를 회복시켜 준, 농경 사회의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다. 힌두교를 거치며 위상은 변모했으나, 세속을 지배하는 강력한 제왕의 성격은 불교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불교에 수용된 인드라는 ‘강력한 제왕’을 뜻하는 ‘샤크라’(Śakra)로 불리며, 한자어 ‘석제환인다라’(釋帝桓因陀羅, Śakra-devānām-indra)로 음역되었다. 그는 불교 세계관의 중심인 수미산 정상, ‘도리천’의 선견성에 머문다. 사방 32천과 중앙의 궁전을 합쳐 ‘33천’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제석천은 사천왕을 거느리며 하늘의 질서를 통솔하는 주인이 되었다.

제석천을 상징하는 지물(持物)은 금강저이고, 승물(乘物, 탈것)은 흰 코끼리 ‘아이라바타’(airāvata)이다. 특히 네 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는 제석천의 권위를 상징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태몽에 등장하는 흰 코끼리 역시 제석천이 지닌 성스러운 제왕의 이미지가 투영된 것으로, 부처님의 신성한 화신을 의미한다. 불교 미술에서 제석천은 늘 범천(梵天)과 대비되는 형상으로 등장한다. 브라만 계급을 상징하는 범천이 수염을 기르고 물병을 든 ‘수행자’라면, 크샤트리아 계급을 대변하는 제석천은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갖춘 ‘왕’의 모습이다. 이러한 도상은 간다라 불전(佛傳) 미술에서 정형화되어, 부처님의 탄생부터 설법을 청하는 범천 권청(梵天勸請)의 순간까지 언제나 그 좌우를 지키는 한 쌍의 수호신으로 정착되었다[그림 6].



[그림 6] 범천 권청 장면 속 범천(왼쪽)과 제석천(오른쪽), 간다라, 1~2세기. © 독일 뮌헨 포럼 소장.

부처님의 법을 사바 세계로 이끈

중추적 조력자, 제석천

인도 불전 미술의 역사 속에서 제석천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그리고 깊은 정적에서 설법의 환희로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의 서사를 완성하는 존재이다. 대표적인 도상인 ‘도리천 강하’(仞利天降下)에서 그는 범천과 함께 보석 계단을 갖추어 부처님을 지상으로 영접하며[그림 7], ‘제석굴 설법’(帝釋窟說法)에서는 천상의 음악가 판차쉬카(pañcaśikha, 五鬘)를 앞세워 선정에 든 부처님께 진리의 설법을 간절히 청한다[그림 8]. 이처럼 제석천은 단순한 수호신을 넘어, 부처님의 법을 이 사바 세계로 끌어내는 중추적인 조력자였다. 흥미로운 점은 서사에 따라 제석천의 표현 방식이 궤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도리천 강하’에서는 범천과 위계적 균형을 이루는 ‘한 쌍’으로 묘사되지만, 부처님께 법을 구하는 ‘제석굴 설법’에서는 제석천 ‘단독’으로 등장하여 지극한 구도자적 면모를 유감없이



[그림 7] 도리천 강하, 간다라, 1세기경, 파키스탄 스와트 박물관. 도리천에서 하강하는 부처님은 보리수와 불족적으로 표현되었다.

드러난다. 인도의 불교 미술이 정립한 이러한 도상적 원형은 훗날 한국 불교 미술이 독자적으로 전개되고 변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미학적 근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불교 미술은 시대적 신앙관에 따라 제석천의 배치 방식을 독창적으로 구축해 왔다.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 후기 ‘신중도’에 이르기까지 제석천과 범천은 대개 한 쌍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전각 내부의 ‘조각상’은 시대마다 뚜렷한 변곡점을 보인다. 조선 전기에는 제석천 한 분만을 모시는 ‘독존’(獨尊) 형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영산전과 나한전[응진전]을 중심으로 제석천 두 분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는 새로운 정형성이 확립된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범천과 제석천’이라 명명해 온 송광사 응진전의 신장상은, 사실 이러한 조선 후기 ‘좌우 제석천’ 양식의 정수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불교 문화 유산이다.



[그림 8] 제석굴 설법, 간다라, 2~3세기. ©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송광사 응진전은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던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성스러운 공간이다. 고대 인도에서부터 설법의 현장을 동행했던 제석천의 상징성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 더욱 숭고하게 계승되었다.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설법의 장소를 더욱 장엄하게 만들기 위해, 천상의 제왕인 제석천을 불단 좌우에 배치한 것이다. 소매 속에 손을 감춘 채 지극한 예우를 갖춘 송광사 응진전의 제석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부처님의 설법을 묵묵히 호위하고 있다. 🌟

- 편집 주(註): 종래 현관은 “應眞堂”이었지만, 2026년 2월 19일 “應眞殿”으로 교체했으므로 이에 맞추어 교정하였다.

유근자 | 동국대학교에서 강의 초빙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국립 순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 기록과 부처님의 생애를 표현한 간다라 불전 미술, 불교 도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시대 왕실 발원 불상의 연구』, 『간다라에서 만난 부처』, 『한국 불교사 조선·근대』 등 다수가 있다.

글·사진 오은미

꽃잎을 놓을 때



켈라니야 사원 (Kelaniya Raja Maha Vihara), 스리랑카. © 오은미,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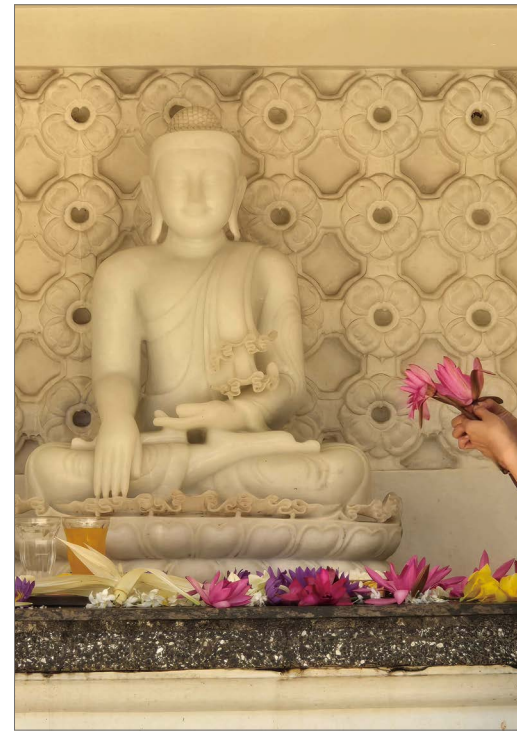
사원의 돌에서 나오는 차가움이 발바닥 속으로 전해져 오고, 건조한 열기가 정수리를 뚫고 들어오고 있다. 두 기운이 심장 언저리에서 서로 교차하며 파동을 일으켰다. 숨을 고르며 꼼짝하지 않고 서 있으려니, 우유를 정제시킨 기(ghee)를 태우는 향과, 사원 여기저기에 예술 작품처럼 놓인 꽃잎들의 향이 나를 사원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남녀노소 모두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고, 부처님 앞에는 꽃, 차, 과일, 쌀, 밥 등의 공양물이 놓여 있었다. 많은 사람의 염원이 짙 차오르는 공간에 머무르고 있어서인지 갑작스러운 숙연함에 부처님처럼 두 손을 포개어 배 아래에 두고 고요히 생각하며 바라보았다.

쌀로 밥을 지어 꽃으로 장식하여 올린 이의 마음.
보랏빛 수련과 하얀 재스민 꽃잎을
하나씩 수를 놓은 이의 마음.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하고 차를 올린 이의 마음.
일출과 일몰의 빛을 닮은 매리골드 꽃을
얹어 놓는 이의 마음.
이들의 마음이 복덕을 쌓는 것이리라.

공양을 올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원 밖으로 나왔다. 그들이 아니면 서 있기 힘든 시간, 강렬하게 내리쬐는 별 아래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 여인의 모습에 계속 눈길이 갔다. ‘얼마나 간절하면 뜨거운 바닥 위에서 기도를 올릴까!’ 그 이유가 궁금하였다.

기도를 끝낸 그 여인은 긴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사원 마당을 쓸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갑자기 발아래가 서늘해지고, 머리 위로 먹구름이 낀 것 같았다.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참다운 공양의 의미에 대한 혼돈이 일어났다. 기도하고 마당을 쓸어 가는, 저 여인의 모습이 사원 안의 아름답고, 귀한 공양물보다 더 정성스러운 공양처럼 느껴졌다. 여인이 쌓은 공덕에 찬탄하며 함께 하고픈 마음이 들었다.

부처님께 진달래 빛 수련을 올리며, 사원 안의 복덕과 사원 밖의 공덕을 기억 속에 온전히 담아가리라 다짐하였다.



켈라니야 사원 내부. © 오은미, 2026.

진달래가 봄날을 가득 채울 때,
그날을 떠올리며 화전을 만들어 보려 한다.
꽃을 피워쭈에 감사하고, 대중 공양할
수만큼만, 즐기마다 둥근 별 같은 꽃을
하나씩 따서 모을 것이다.
꽃술을 제거하고 세척 후, 자연스럽게
수분이 날아가게 하고, 찹쌀가루는 소금을
넣고 익반죽한다.
말랑말랑한 찹쌀 반죽을 꽃이 편하게
들어갈 만하게 동글납작하게 빚어,
넓은 팬에 식물유를 조금 두르고 지진다.
한쪽 면을 살짝 익힌 후 뒤집어 꽃잎을 올리고,
반대쪽은 충분히 익혀준다.
이때 팬에 수저로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덮어 가열하면, 윗면이 수증기로 익으면서
쫄깃하고 촉촉한 화전이 완성된다.
뜨거울 때 설탕을 뿌려 그릇에 담으면
달라붙지 않는다.
바로 먹을 때는 묽은 조청을 곁들이면
좋을 것이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
진달래로 뒤덮일 날들이 기대된다.
진달래 꽃구름에 복덕과 공덕을 실어
모든 이와 나눔을 하리라. 🌸

오은미 |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 분야는 식품 영양학이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강의했으며, 전통 사찰 음식 분야의 전문가 과정 및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등을 수료했고, 현재 <수수(授受) 음식 연구소>의 대표자이다.

글 이정범

근대의 송광사를 든든하게 지킨

금명 보정



금명당 대화상 진영. © 송광사 성보박물관.

조선 후기, 하루가 다르게 근대화가 시작될 무렵, 일부 유생과 관리들은 여전히 송유역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불교계와 스님들을 괴롭혔다. 그들은 사찰을 유원지처럼 여겼고 스님들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사탑과 불상을 함부로 훼손했다. 심지어 사찰 경내의 명당에 분묘를 쓰기 위해 절을 아예 폐사시키는 만행도 저질렀다. 사찰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은 관리들이 나오면 뚜껑 없는 의자 형태의 ‘남여’(籃輿)라는 가마를 메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주변 명승지를 오르내려야 했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이 그런 일을 맡았으며, 그들을 일컬어 ‘남여승’이라 불렀다.

이때 송광사에 주석하던 금명 보정(錦溟寶鼎) 선사가 서울로 올라가 사찰의 상황을 관련 기관에 보고했다. 얼마 후 고종 황제는 지방관의 횡포와 승려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상세히 듣고 나서 송광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이 부담하던 남여 부역을 모두 없애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남 관찰사와 순천 군수는 송광사 등 관할 지역 사찰의 남여 10여 개를 모두 걷어 태워 버렸다. 물론 전국 각 사찰에 있던 남여도 모조리 없었다. 이렇게 남여 부역이 사라짐에 따라 송광사에서는 그 일을 기념하는 뜻으로

일주문 인근 바위에 ‘남여 혁파’라는 명문을 새겨 넣었다. 훗날 금명 스님은 고종의 명으로 남여가 혁파된 과정과 소회를 ‘남여를 혁파하는 연기(緣起) 기문’을 통해 밝혔다. 그 글에서, 임금의 명에 따라 “천년의 고질병이 하루아침에 단번에 나오니, 이 어찌 환단(還丹) 한 알의 명확한 효험이 아니겠는가?”라며 만시지탄의 감회를 밝히고 있다.

1861년(철종 12년), 지금의 순천시 주암면에서 태어난 금명 선사는 근대의 뛰어난 학승이자 선승으로 송광사를 승보 종찰로, 조계종의 근본 도량으로 당당하게 세워놓은 고승이다. 금명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이씨 부인은 비단 같은 오색구름이 피어나는 가운데 시냇물이 넘쳐흘러 큰 바다를 이루는 태몽을 꾸었다. 이 꿈으로 인해 그는 훗날 ‘비단 금(錦)’에 ‘바다 명(溟)’을 합친 금명이란 법호를 가지게 되었다.

금명은 어려서부터 영특한 신동으로 소문이 나 사람들은 그를 ‘영준(英俊)’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영준이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875년(고종 12년)에는 어려워진 집안 형편으로 네 형제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때 영준은 아버지의 명대로 집에서 멀지 않은 순천 송광사로 가 금련 경원(金蓮敬圓)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 뒤로 출가 본사인 송광사를 비롯해 천은사, 선암사, 화엄사, 대흥사 등 호남 지역의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며 당대의 대강백들에게

경전을 배웠다. 그중 그가 주로 머물며 공부한 곳은 송광사 광원암과 보조암이었다. 열다섯 살에 출가해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경전을 익히고 참선 수행을 하던 그가 송광사에 정착한 것은 1889년 무렵이었다. 이때 그의 은사인 금련 스님이 병석에서 말했다.

“나는 병상에 있는 지 오래되어 전해 줄 물건이 없구나. 그러니 너는 다른 사람에게 법을 구해 건당(建幢)하도록 하여라!”

이에 은사를 지극히 간병하던 금명이 고개를 저었다.

“십 년 동안 가르치고 길러주신 본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마음을 전하는 법이 오직 우리의 가풍입니다. 물건이 있고 없음이 어찌 도를 만족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은사의 법을 잇겠다고 다짐한 그는 1890년 송광사 보조암에서 열반한 금련 경원 선사 아래로 건당했다.

이로써 부휴 선사로부터 14세의 법맥을 이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송광사 청진암, 광원암, 보조암, 화엄사 봉천암 등에서 강석을 열었던 금명의 강의를 듣기 위해 뛰어난 수재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었다. 광원암에서 『화엄경』을 강의할 때는 60여 명이나 강의를 듣게 되어 강당이 비좁았다고 한다.

경인선이 개통되었던 1899년, 금명은 고종의 칙령에 따라 해인사로 가서 ‘대장경 인정 불사’의 교정과 편집 소임을 맡았다.

이 인경 불사는 당초 안변 석왕사에 주석하던 용악 혜견(龍嶽慧堅, 1830~1908년) 선사가 발원하여 고종의 후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모두 4질을 인경해 송광사 등 삼보 사찰에 1질씩 모시고 1질은 전국 각 사찰에 1부씩 나눠 모시게 되었다.

금명은 남여 혁파에 그치지 않고 조계산을 향탄 봉산(香炭封山)으로 제정하게 하여 관청에서 부과하던 갖가지 잡역을 없애도록 했다. 향탄 봉산이란 국가의 제사에 필요한 향과 숲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벌채와 입산을 금지한 봉산을 말한다. 송광사에서는 이미 1829년(순조 29년)에 조계산을 울목 봉산으로 제정한 바 있었다. 종묘나 왕릉 또는 공신들의 밤나무 위폐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울목 봉산이었으나 70여 년이 지나 그 효력이 별로 닿지 않자 새로 향탄 봉산으로 제정토록 한 것이다.

이처럼 금명은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송광사를 외호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며 많은 저술과 다도, 시(詩)에도 일가견을 이룬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남긴 저술은 『불조찬영』 1권, 『시고』 3권, 『문고』 2권, 『정토찬백영』 1권이며, 『조계 고승전』 1권, 『저역 총보』 1권 등 수많은 책을 편찬했다. 그 양은 『선문염송』을 편찬한 송광사 제2세 진각 국사 해심 다음으로 방대한 분량이다. 금명 보정 선사는 금명이란 법호 외에 스스로 지은 다송자(茶松子)라는 호를 즐겨 썼는데 그가 남긴 시집인 『다송시고』 3권에는

모두 1,100여 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고승들 중 가장 방대한 분량의 시집으로 알려진다. 한편 금명이 편찬한 책들 중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조계 고승전』은 60세 되던 1920년부터 편찬을 시작해 10년 뒤인 1930년에 완성된 역작이다. 금명은 이 책에 보조 국사 지눌을 비롯해 조계 산문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 고승 386명의 행장과 이름을 수록했다. 이 중 전기(傳記)가 있는 스님은 97명, 이름만 수록된 스님은 289명이다. 이 책은 보조국사와 그의 목우가풍을 잇는 부휴계 고승들의 업적을 조명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대한 불교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쓰이게 된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위상이 높이 평가된다. 이처럼 송광사 인근에서 태어나 평생 송광사를 외호하며 무수한 후학들을 양성했고 수많은 저술과 시를 남긴 금명 보정 선사는 1930년 2월, 송광사 보제당에서 입적했다.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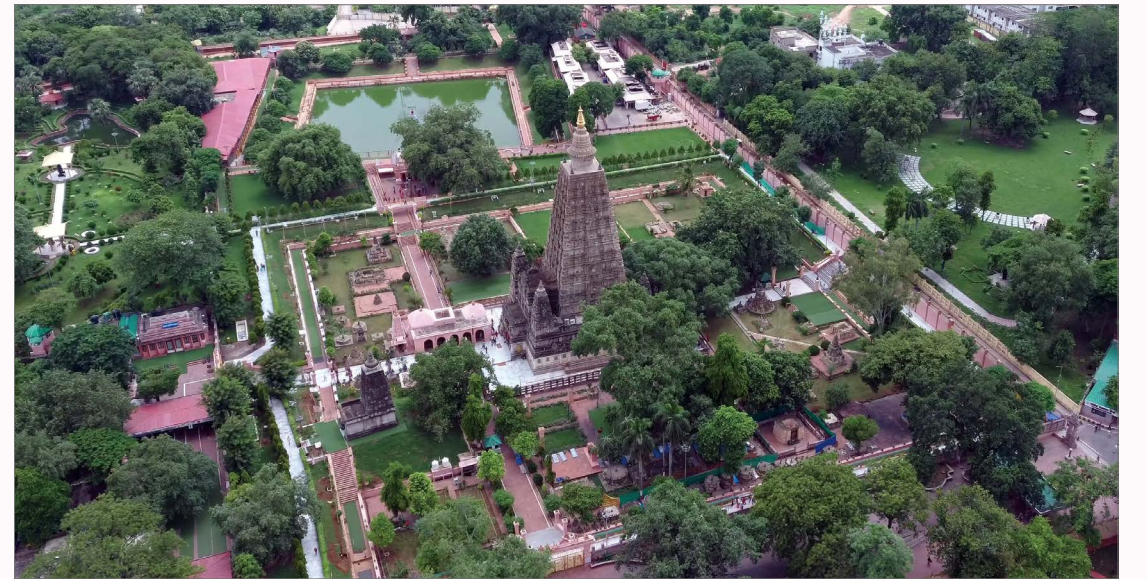
이정범 1 작가.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뒤 우리 역사와 불교 인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해왔다. 보조 국사 지눌의 생애를 다룬 역사 소설 『그대 마음이 부처라네』, 효봉 큰스님 전기 소설 『붓다가 된 옛장수』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글·사진 황순일

인도 보드 가야 대각 사원



인도 보드 가야 대각 사원
https://youtu.be/YhlqfGloCgc?si=VWdlA_x1_o7m0pqm



대각 사원, 보드 가야, 인도. © 황순일, 2019.

미닛 불교 유튜브 채널에 인도의 순례지에 대한 영상들이 있다. 누군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곳은 당연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 가야(Bodh Gayā)이다. 필자는 보드 가야에 일곱 번 정도 갔었다. 1993년 대학생 때 간 것이 처음이고, 가장 최근에 다녀온 것은 올해 1월 중순이었다. 보드 가아는 갈 때마다 항상 필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다. 대학 3학년 배낭여행 시절의 보드 가야 방문은 필자에게 불교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석사 과정 시절의 보드 가야 방문은 알렉산더 커닝엄(Alexander Cunningham, 1814~1893년)의 보드 가야 사원 발굴기를 탐독하고, 유적지 구석구석을 세세하게 확인하면서

불교 고고학자로서의 꿈을 키워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5년 전 드론(drone, 무선 조정 비행기)을 들고 보드 가야를 방문했을 때 필자는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었고, 보드 가야에 대해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의욕에 불타고 있었다. 다만, 당시에 인도 여행한 사람이라면 한 번씩 겪는 배탈이 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 계획한 대로 사원 전체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못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덕분에 드론 촬영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루벨라(Uruvella), 전정각산(前正覺山), 수자타 마을, 대각(大覺, Mahabodhi) 대탑, 보드 가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2년 전 학회가 있어서, 일본 교토를 방문했을 때 몇몇 일본 학생들이 내가 만든 보드 가야 마하보디 사원의 영상을 잘 봤고 덕분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공간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었다.

최근의 보드 가야는 무질서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어 엄청나게 혼잡해졌고 수많은 순례객으로 마하보디 사원이 가득 차 버렸다. 옛날처럼 사원 한구석에 홀로 앉아 부처님의 발걸음을 천천히 따라가 보거나, 주변의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사원 등을 찾아서 스님들과 담소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보드 가야는 보드 가야였다. 혼돈 속에 질서가 있었고 번잡 속에 고요가 있었다. 마지막 방문에서 필자는 정신없이 등 떠밀려서 마하보디 대탑 둘레를 탑돌이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때 마주친 수많은 불자의 다양한 모습과 이들이 당당하게 외치는 다양한 독경소리는 필자의 불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난장판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리수의 모습은 필자에게 혼돈과 번잡 속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다가왔다. 순례 온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마하보디 대탑을 참배하고 정신없이 다음 순례지로 향한다. 하지만 시간 여유가 있다면, 며칠 정도 보드 가야에 머무르면서 불교에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둘러보면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를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드 가야의 동쪽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6년 동안 고행했던 장소와 고행림, 전정각산이 있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수자타가 살았던 우루벨라 마을과 우루벨라에서 보드 가야로, 부처님께서 이동하신 경로를 따라 펼쳐진 네란자라 강이 있다. 그리고 네란자라 강과 마하보디 대탑 사이에 있는 보리수로 향하던 부처님께서 가난한 농부를 만나 금강좌에 깔기 위한 풀을 받은 곳이 있다.

마하보디 사원 구역에는 마하보디 대탑과 보리수 사이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 앉으신 금강좌가 있다. 또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께서 1주일씩 머무르셨던 보리수와 아자팔라 나무가 있었던 곳이라고

알려진 장소가 있고, 갑작스러운 비가 왔을 때 부처님의 몸을 7번 감고 부처님의 몸을 보호해 주었던 무찰린다(Mucalinda) 용왕의 호수가 있다. 그리고 상인 타풋사(Tapussa)와 발리카(Bhallika)의 공양을 받은 부처님에게 사천왕이 나타나 발우를 올리고 상인 타풋사와 발리카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최초로 불(佛)과 법(法)에 귀의한, 2귀의(歸依) 불자가 된 장소에 라자야타나 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어렵게 알아차린 연기와 열반의 가르침을 욕망과 쾌락에 물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자, 범천(브라마 신)이 나타나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설득했던, 범천 권청의 장소가 남아 있다. 이때 부처님께서 생류들에 대한 자비심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 불교를 가르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불사(不死)의 문을 열겠다고 선언하게 된다. 불교가 종교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보드 가야를 둘러싼 이야기들도 갈수록 신비롭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 이후 보드 가야에 7주간 머물렀던 것으로 정리된다.

첫 주에는 보리수아래 결가부좌를 한 자세로 앉아 연기법을 순관으로 역관으로 사유하시면서 깨달음의 환희를 누리셨다.

둘째 주에는 서서 보리수를 바라보며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준 보리수에 감사를 표하셨다. 셋째 주에는 천상 세계로 올라가 은하수에서 경행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주적으로 확장하셨다. 넷째 주에는 신들이 만들어 준 보석으로 만든 궁전에 앉아서 가르침을 설할 방법으로 아비달마를 구상하여, 후대에 불교가 교리적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된다. 다섯째 주에는 탐·진·치, 3독으로 대표되는 마라의 딸들의 유혹을 깊은 명상 속에서 물리치셨다. 여섯째 주에는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날씨가 추워지자 무찰린다 용왕의 보호를 받으셨다. 일곱째 주에는 타풋사와 발리카의 공양을 받아 최초의 불교 신자가 생겨나고, 범천 권청을 통해 불교의 전파에 나서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부처님의 7주가 마무리된다. 사실상 보드 가야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불교가 시작된 곳이면서, 부처님의 7주를 통해서 불교가 종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황순일 |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초기 불교의 열반 개념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초기 인도 불교의 열반 이론』을 비롯하여 다수의 저서가 있다.

 미닛불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minutebuddhism8210



현재 침계루.

국가 지정 문화 유산 보물로 지정된

침계루 (사자루)



1930년대 침계루.

송광사 경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누각인 침계루(枕溪樓)가 2025년 12월 23일 지정 예고를 거쳐서 2026년 2월 20일 보물로서 최종 지정되었다.

조계산 자락을 굽이굽이 흘러 내려온 계곡 한 편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침계루는 정면 7칸, 측면 3칸 규모의 2층 누각이며, 14세기 목은 이색(李穡, 1328~1396년)의 시 “제침계루(題枕溪樓)”에도 등장한다. 이를 근거로, 고려 말에는 현재의 위치에 터를 잡은 것으로 추정한다.

『송광사지』에서는 1688년 현익과 해운 두 스님이 중건했다고 전한다. 『송광사지』에 따르면 침계루에서는 큰 재(齋)가 있을 때 대령(對靈: 영가를 위로하는 의식) 의식을 봉행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목련 존자의 효행을 담은 “목련국”과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팔상국” 연극이 침계루에서 봉행되었다.

『송광사사고: 건물부』에는 용운(龍雲, 1813~1886년) 스님이 지은 “송광사 사적(松廣寺事蹟)”이 있는데, “침계루 위에는 천여 명이 앉을 수 있고 아래에는 여러 장(丈)의 깃발을 세워둘 수 있다. 이는 도회(都會)의 각 절 대작 불사 때 쓰이는 법구(法具)들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침계루의 규모뿐 아니라 그 용도까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송광사지』에 침계루의 용도를 ‘준창고용(準倉庫用)’이라 한 것과 비슷하다. 또한 송광사를 비롯한 인근의 도심지 사찰에서 큰 재나 불공이 있을 때, 침계루에 보관 중이던 각종 불구(佛具)를 대여하여 불사를 봉행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요즘은 침계루에서 각종 수련 법회와 백중재, 강연회 등을 거행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침계루가 “자연을 매개로 한 ‘전통 누정(樓亭)’이라는 특성과 불경을 공부하는 ‘불교 강원(講院)’이라는 교육 기능을 동시에 갖춘 소중한 유산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보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성보박물관 특별 전시 ‘말사 기탁 성보 특별전’ 개막식

2026년 2월 13일, 송광사 성보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말사 기탁 성보 특별전’의 개막식이 열렸다. 자운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 복장 유물 외 120여 점의 성보가 전시된 특별전은 “경수 보장(敬守寶藏)”의 의미를 기리면서,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공개한다.



정초 ‘사천왕제’ 봉행, 도량 안녕과 국운 융성 발원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천왕문에서 ‘정초 사천왕제’를 엄수하고, 올 한 해 불자들의 가정에 평안과 복덕이 가득하기를 서원했다. 사천왕제는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지국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께 공양을 올리며, 복덕을 기원하고 정법 수호를 다짐하는 의식이다.



병오년 새해 여는 ‘응진전 정초 기도’ 입재

승보 종찰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에서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응진전에서 ‘정초 기도’를 봉행했다. 한 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16나한의 가피(加被)를 기원하며 함께 모여 발원하였다. 정초 기도는 2월 19일(음력 1월 3일)에 입재하여, 2월 25일(음력 1월 9일)에 회향하였다.



‘정초 지장 기도’ 입재, 지장 보살대원력으로 업장 소멸 서원

2026년 2월 25일, 지장전에서 ‘정초 지장 기도’를 봉행했다. 7일 동안 선량 부모의 덕을 기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지장 기도에서 정진하신 스님께서는 “지장전의 고요한 울림 속에서 올리는 기도는 나 자신은 물론,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의 고통을 여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셨다.



관음전 기도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곧 그 음성을 관찰하고 다 해탈하게 하느니라. -『관세음보살보문품』

황실 기도처였던 유서 깊은 전각, 송광사 관음전 기도에 동참하시어 바라는 것,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천일 기도 100만 원 • 일년 기도 30만 원
백일 기도 10만 원 • 관음재일 기도 매달 1만 원씩

문의 기도 접수처 061-755-5306
계좌 우체국 501676-01-000520(예금주: 송광사)

Ch

송광사의 모든 소식,
내 손안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궁금했던 기도 점수와 법회 일정,
확인하기 번거로우셨나요?
이제 조계총림 송광사 카카오톡
채널 하나로 해결하세요!

조계산 송광사가
당신의 일상으로
찾아갑니다.



Ch + 채널 추가하기

지금 바로 “채널 추가”하시고,
병오년 새해 송광사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보세요.

YouTube 송광사TV

방장 편양 현묵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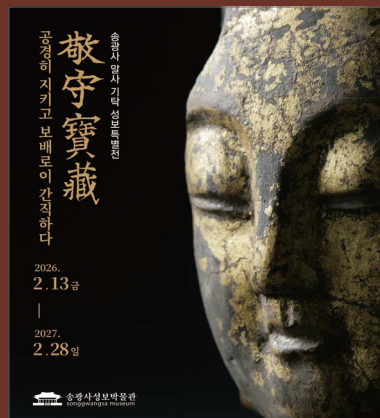
일요 참선 법회

매주 일요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열리는
일요 참선 법회가 있습니다.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송광사TV 라이브로 함께해 주세요.

구독·좋아요·알림설정·댓글은 선업 공덕이 됩니다.

월간 『송광사』 편집부에서는 송광사 교구 사찰의 소식을 실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61-755-0107



〈敬守寶藏, 공경히 지키고 보배로이 간직하다〉
송광사 말사기탁 성보 특별전 개최

송광사 성보박물관(관장 고경 스님)에서는 불기 2570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까지 조사가 완료된 말사기탁 성
보 특별전 〈경수보장(敬守寶藏)〉을 개최한다. 이번 특
별전에는 광주 전남 지역 말사 12곳에서 도난과 훼손
을 막기 위해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기탁한 120여 점의
성보가 전시된다. 특별전의 제목은 흥선대원군 이하
응(李昰應, 1820~1898년)이, 7세 때의 영조가 쓴 “송죽(松
竹)”을 보고 남겼던 배관기(拜觀記) 중 “영조 7세 때의 어
필로 참으로 세상에 드문 귀중한 보배이니 공경히 지
키고 보배로이 간직하라(英祖七歲時御筆 眞稀世重珍 須敬
守寶藏).”라고 쓴 글에서 인용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30
여 년 동안 말사에서 기증, 기탁한 성보를 보존하고 전
하는 일을, 흥선대원군이 쓴 배관기의 내용처럼, 공경
하며 온전히 지키고 간직하려는 마음을 담았다.
〈경수보장〉 특별전은 2026년 2월 13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개최합니다.

전시 기간 2026년 2월 13일~2027년 2월 28일

전시 장소 송광사 성보박물관

관람 문의 061-755-0407

송광사와 함께할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061-755-0107

임
명

화순 유마사
일장 스님



일장 스님은 지난 1월 6일, 화순군 유마사(維摩寺)의 주지로 임명되
었다. 일장 스님은 흥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1978년 범어
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하였고, 1980년 해인
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광양 삼광사
대륜 스님



대륜(大倫) 스님은 지난 1월 21일, 광양시에 자리한 삼광사(三光寺)
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대륜 스님은 현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
다.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하였
고, 198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 구족계를 수지
하였다.

광주 흥룡사
원일 스님



원일(圓一) 스님은 지난 1월 28일, 광주 광역시 흥룡사(興龍寺)의 주
지로 임명되었다. 원일 스님은 상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고,
1992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하였으
며, 1999년 직지사서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 구족계를 수지
하였다.

서울 심곡사
고월 스님



고월(古月) 스님은 지난 2월 3일, 서울 성북구에 자리한 심곡사(深
谷寺) 주지로 임명되었다. 고월 스님은 원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
여, 2013년 직지사서에서 고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하였고,
2018년 직지사서에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월간 『송광사』
정기 구독 / 법 보시

1년 정기구독료 30,000원

| 문의 전화 | 기도 점수처 061-755-5306

| 후원 계좌 | 우체국 501676-01-001432
(예금주: 송광사)

정기구독 / 법 보시 회원

정기구독 및 법 보시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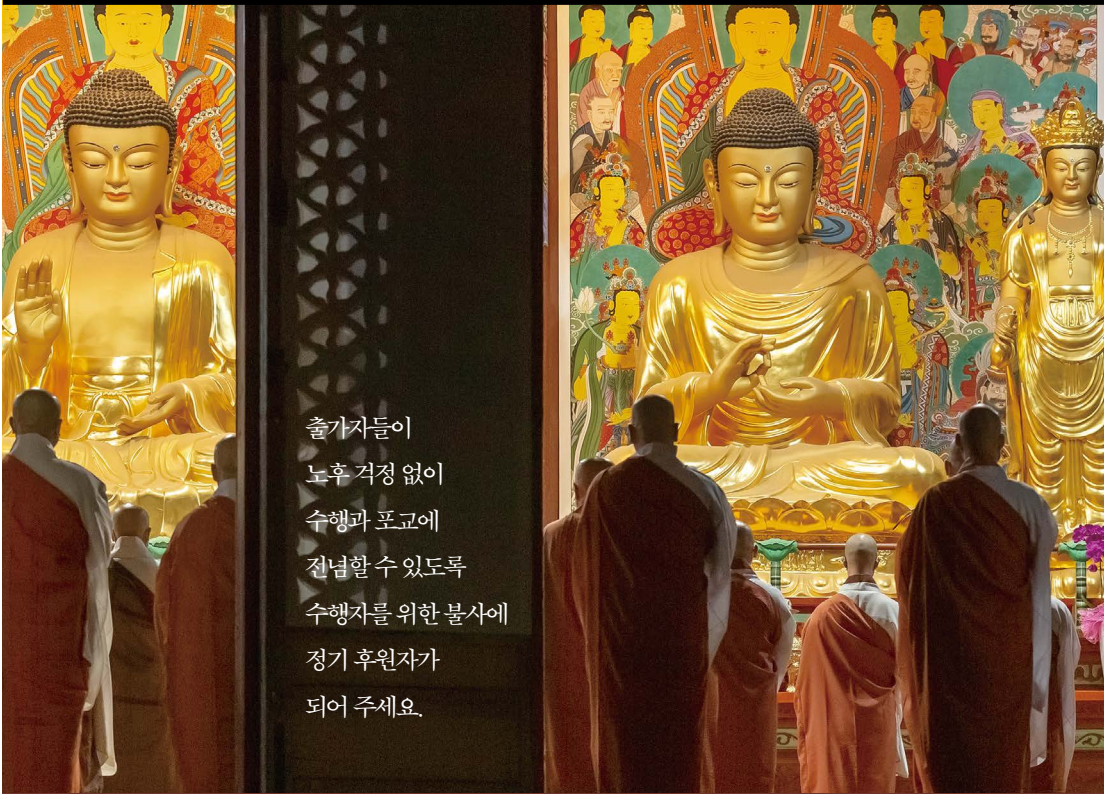
정기구독을 연장하거나 주소가 바뀐 독자님께서는 반드시
편지실로 알려주셔야 배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송광사』
2026년 2월호 배포 현황

우편 발송 단체 말사(21교구 말사 88개): 618부·
본사 22부·병원(법사 스님이 있는 전국 23개 병원)
149부·기타(교도소, 21교구 외 사찰 등): 335부·
군법당: 79부·불일회: 37부, 개인 공식(교구 본
사, 종단, 관공서, 언론, 학계 등): 104부, 구독 회원
(평생 회원 및 정기구독 회원): 491부, 고정 회원(필
자, 감로암불사, 반연등): 238부, 신도(해당 월을 기준,
이전 12개월 동안 10만원 이상 동참한 신도): 5,356부,
송광사 후원 회원(점수한 후원 회원 중 1회 이상 납입
한 회원): 3,023부, [※개인 발송중 중복된 회원 3,663부
제외] 사증 배포 1,211부.

송광사
후원 안내

송광사승가복지회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출가자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행자를 위한 불사에
정기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정기 후원이 아닌 일시를 후원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55-0042-9947-63 예금주: 송광사

송광사 승가복지회 주요 사업 송광사 승가복지기금은 수행 기관을 지원하고 송광사 스님을 위한 각종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입니다.	현재 승인 회원 3,135명
송광사 승가복지회 후원 회원이 되시면 • 매달 발행하는 사보 월간 『송광사』 발송 • 연말 소득 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 1년 60만 원 이상 후원 시 입장료 면제 및 차량 통과 혜택	1월~2월 신규 등록 회원 5명 해지 회원 3명 입금액 40,460,340원 (2026. 1. 15. ~ 2. 14.)
송광사 승가복지기금 운영 현황 송광사 승가복지기금은 투명성을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의 후원으로 모이는 기금 내역과 운영 현황은 사보를 통해 공개합니다.	비정규 회원 58명 입금액 1,590,000원 2월 총 입금액 42,050,340원

송광사 승가복지회를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월 신규 동참자(가나다순)
김가민, 문은철, 이명안, 조병순, 한재인

| 문의 전화 | 061-755-5306

출가자의 청정도량

송광사는 보조 스님께서 청정한 계행과 올곧은 수행 정신으로 정혜결사를 펼친 도량이자 구산 스님의 철바라밀을 매일 아침 낭송하는 생활불교 실천도량이며,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이어가는 도량입니다. 예불, 공양, 기도, 정진, 포행, 운력 등 송광사에서의 모든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그러나 출가자들이 갈수록 줄고, 사찰의 운영은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출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취약하기만 합니다.

수행자를 위한 불사

수행자의 소명은 수행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며, 수행자를 외호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불사입니다. 송광사를 후원하는 것은 곧 수행자를 위한 불사입니다. 출가자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재가자들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후원의 목적입니다.

승가 복지 기금 2월 지출 현황

건강 검진	1,000,000원
의료비 지원	10,370,300원
홍보 포교비	17,981,270원
노후 수행비	5,000,000원
2025년도 하반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일부(50%)	17,009,520원
관리비	66,000원
합계	51,427,090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 후 010-9369-5306으로 보내주시면 후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송광사 승가 복지회 후원 회원 신청서

신 청 인	
연 락 처	
주 소	
예 금 주 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출 금 은 행	
계 좌 번 호	
매 월 납 부 액	☐ 월 1만원 ☐ 월 2만원 ☐ 월 3만원 ☐ 기타 (월 만원)
지 정 출 금 일	☐ 매월 10일 ☐ 매월 25일
수 납 기 관 명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1. 수집 및 이용목적 : 나이스페이먼츠㈜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 2.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3.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서비스 종료일(해지일)까지며, 보유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관계법령에 의거).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 ● 1. 결제(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관련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을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나이스페이먼츠㈜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탁 계약을 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계약을 서면 보관하고 있습니다.

~~~~~  
**상기 자동이체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및 문자(SMS) 발송에 동의하며, 자동출금이체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금주	
서명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에는 예금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서명은 출금 통장의 서명을 사용합니다.

[illegible][illegible]

대중 공양 물품 후원 받습니다

송광사에서는 대중 공양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물품은 사중 스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소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 안길 100
문의 전화	원주실 061-755-5301, 010-9440-5301 기도 접수처 061-755-5306 종무소 061-755-0108
원주실 계좌	농협 351-0390-5386-13 (예금주: 송광사)
불사후원 계좌	우체국 501676-01-001828 (예금주: 송광사)
기도 접수처 계좌	농협 351-0482-9771-03 (예금주: 송광사)

대중 공양

- 강권홍(5만 원), 강월선(20만 원), 강정연(감굴 5박스), 고성 보살(김영희, 참기름 36리터), 광주 육바라밀회(100만 원), 권은경(5만 원), 권재현(20만 원), 권점숙(5만 원), 금강선원(망고 2, 굴 1, 딸기 1, 총 4박스), 김*란(김 2묶음), 김권하(피자), 김규호(100만 원), 김영곤(5만 원), 김윤선(20만 원), 김은영, 박지영, 허지연(콜라비 2박스), 김일화(호두과자 10박스), 김정하(10만 원), 김향미(1만 원), 김혜영(3만 원), 능가사(뽕), 대전 보덕회(100만 원), 덕조 스님(떡국 떡 5박스), 두레청과(블루베리 2박스), 무시묘(단감 1박스), 박기오(6만 원), 박길순(10만 원), 박필수(10만 원), 법마사(체리 4, 망고 3, 멜론 5, 총 12박스), 보림사(초밥, 인도 요리), 보성사(박카스, 두유, 설록, 절편, 각각 1박스), 보안 스님(콩부차 3박스), 불심 스님(두리안 5박스), 불일불교대학 12기(50만 원), 서울 길상사(두리안 10박스), 설주 스님(콘드레), 수월행(100만 원), 신요언(쌀 160kg), 신용준(20만 원), 신진옥(20만 원), 안태현(10만 원), 약사암(100만 원), 연각 스님(칼국수 5박스), 운주사(굴 5, 샤인머스킷 5, 총 10박스), 원만행, 청량지(60만 원), 유재경(사과 2박스), 윤계순(10만 원), 윤대원각(월 2박스), 이경일(10만 원), 이서진(20만 원), 이음 청년회(떡국 1포, 라면 1박스), 이태현(1만 원), 이혜영(쌀 10kg), 일산 정혜사(100만 원), 일심화(참기름 4), 장승완(떡 2박스), 정*지(쌀 20kg), 정광명(동지 팔죽), 정명화(물미역, 툷), 정선희(매생이 2박스), 정인서(20만 원), 정점례(10만 원), 증심사(두리안 8박스), 지현 스님(한과), 지혜장(50만 원), 진불선(피자), 창원길상사(만주), 천우이엔지(주)(60만 원), 탑전(쌀 30kg), 하태웅(10만 원), 해탈심(사과즙), 행복꽃마당(10만 원), 황해상, 안선희(100만 원). [7나다순 정월]
- 구자번(100만 원), 김영숙(100만 원), 문성필(10만 원), 박화연(10만 원), 윤용국(30만 원), 조봉익(10만 원), 차상임(14만 원), 천송운(30만 원).

화경당 불사금

- 기동 | 신강식(1,000만 원).
- 동참금 | 안근호(10만 원), 이민수(10만 원), 문봉언·최안선·문서영·문은서(30만 원), 시경 스님(100만 원), 김규영(10만 원), 유금옥(10만 원), 길상사(2,000만 원), 김태철(10만 원), 시한송(10만 원), 강삼영·이은정·강문우·강준우(40만 원), 황금숙(10만 원).
- 사끼래 | 정운경(50만 원), 장혜영(50만 원), 장형우(50만 원), 박혜진(50만 원), 박상희(50만 원), 이용식(50만 원), 석상규(50만 원), 석아인(50만 원), 석도훈(50만 원), 김광현(50만 원), 유명순(50만 원), 허영일(50만 원), 오명록(50만 원), 하범만·김선호·하석진(50만 원).
- 도리 | 김소연(100만 원), 안길상(100만 원), 박정언(100만 원), 김덕년·박양선·김나영·김도영(100만 원), 조영란(10만 원 / 분납), 문복지(10만 원 / 분납), 김애진(10만 원 / 분납), 전흥신(100만 원).

시주금

임승범·임승현(난방비)(50만 원), 이체현(40만 원), 이종민(30만 원), 최영섭(10만 원), 장안심(10만 원), 박화연(10만 원), 장대영(10만 원), 송경호(10만 원), 오혜선(10만 원), 김혜경(10만 원).

관음전 인등 신규 동참자

강나경·2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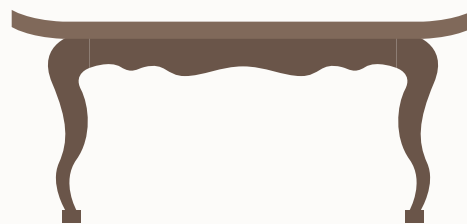
산신각 인등 신규 동참자

한상근·5070 이명아·5069
신용욱·5312 김자영·5162
김수진·6321

삼성각(응향각) 인등 신규 동참자

박한섭·403	최정록·425
황경희·426	최우준·427
최지아·428	정민·429
김성훈·430	문리후·431
지윤우·432	이유준·433
김인준·434	정상훈·486
이새희·487	이재원·488
이민하·489	이병기·490
조재원·495	조재민·496
윤동희·497	임채만·498
임은지·499	임은재·500
정인우·501	이여정·502
김지안·503	김승우·504
유이수·505	정제희·506
차윤지·507	전훈정·508
황은정·509	김률희·510
윤준혁·511	민보경·512
박지안·513	오연수·514
하현무·515	하현희·516
조연제·517	이성연·518
이체호·519	김성수·520
김영서·521	제용진·522
강동울·523	백효진·524
강채원·525	김종현·526
이의주·527	정경희·528
이우정·529	뜰이·530
조서빈·531	윤이슬·532
이형빈·533	홍나원·534

순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26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사찰 음식 문화 한마당



자연을 담은 밥상, 소리를 빛는 도량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의 장

3월 29일 송광사에서 만나요!

일시

2026년 3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장소

송광사 대응전 앞마당

대상

순천 지역 주민 및

사찰 방문객 누구나

사찰 음식 뷔페 나눔

제철 봄 나물을 활용한 정갈한 한 상
함께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교류의 밥상

전통 국악 공연

남도 전통의 품격 높은 율림
전남 도립 국악단 19인의 연주

전통차·한과

식전과 식후의 여운을 더하는 차 한 잔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후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210

봄 기운이 가득한 송광사 대응보전 마당에서

자연의 맛을 나누고 전통의 소리를 함께 듣는 시간

승가대학(강원) 신입·편입학인 모집

모집 대상	신입·편입(2, 3학년) 학인
전형 일정	1) 모집 기간 : 3월 1일 ~ 4월 5일 2) 입사(入寺) 날짜 : 4월 6일 15시까지
제출 서류	1) 수계증 또는 사미증 사본 2) 증명 사진(만의·장삼 착용) 5매(3×4cm) 3) 편입은 전 학년 수료 증명서
준비물	발우, 만의가사, 장삼
강원 입방 특전	1) 재학생 전원 - 의료비 지원 2) 노트북, 아이패드 지급 및 다수 장학 혜택 3) 2학년 - 국내 5대 적멸보궁 순례 4) 졸업 예정자 - 해외 성지 순례
문의 전화	승가대학 학장 연각 010-3215-0250 종무소 061-755-0107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 범산 연각

2026학년도 승보종찰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승보종찰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에서는 청정법행과 정법구주를 실현하는 승보로서의 스님들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본 율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스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원 자격	2026년도 비구계 수계 대상자 승가대학 또는 동등 교육 기관 졸업자 및 예정자
접수 일자	공고일 ~ 2026년 3월 31일까지
면접 일정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전형 방법	서류, 면접 갈마
제출 서류	추천서(본원 소정 양식, 송광사 홈페이지 참조) 승적 증명서 건강 진단서(2026년도 비구계 수계자 제외) 졸업 증명서(기본교육기관) 사진(3×4cm) 4장
율원 입방 특전	재학생 전원 의료비 지원 노트북 지급 및 다수 장학 혜택 해외 성지 순례
문의 전화	율감 010-5290-0387 율원 061-755-1782

律主 善應 知玄 律院長 佛印 大鏡



조계총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화경당 건립 불사 모연문

『보은론』에서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계는 부처님의 행동이며, 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敎者 佛言也, 戒者 佛行也, 禪者 佛心也).”라고 하였습니다. 계의 힘으로 선정이 증장되고 지혜가 발휘됩니다. 수행은 도량을 장엄하고 기도는 공덕을 드러냅니다. 보조국사의 결사 정신은 계·정·혜 삼학을 여실히 갖추어서, 신·구·의 삼업을 여법하게 드러내어, 부처님의 법을 바로 세우고 불교 중흥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승보종찰 송광사 율원은 현재의 승가 복지 시설에 걸맞게 수행 공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 율원 도량을 장엄하고, 공덕을 여실히 드러내어 동참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가정에 날마다 번뇌는 줄어들고, 지혜는 증장되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대들보	2,000만 원	○기둥	1,000만 원
○창호	500만 원	○주춧돌	300만 원
○도리	100만 원	○서까래	50만 원
		○동참금	10만 원

계좌
우체국 100-0001-46143 (예금주: 송광사)

문의
기도 접수처 061-755-5306